



山地資源의 保護는 永遠한 國民的 課題

- 산불 病害虫防除 淨化에 注力 -

林政局長 李 芝 龍

1991年은 2000年代를 向한 跳躍의 第1次年度이며 우리 山林行政에 있어서는 山地資源化10年計劃의 第4次年度로서 온갖 知慧와 情熱을 쏟아 着實하게 푸른資源의 寶庫를 이룩해 나가야할 중요한 해이다. 이를 위해 今年度 林政局의 主要施策은 ① 山林資源의 保護와 山地의 淨化, ② 林產物流通構造의 改善 ③ 木材의 安定的供給을 爲한 海外 山林開發의 擴大 ④ 山林投資의 促進을 爲한 資金의 融資支援擴大에 力點을 두고 推進할 計劃이다.

1. 山林病害虫의 徹底한 防除

지난해 山林病害虫의 擴散阻止를 爲해 全行政力を 集注하여 總力防除를 實施한 結果 90年末現在 山林病害虫 發生面積은 89年보다 34千ha가 줄은 386千ha이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山林面積의 6%가 山林病害의 被害를 입고있는 實情이다. 그중 가장 고질적인 被害를 입고 있는 病害虫은 254千ha의 솔잎혹파리와 9,600ha의 솔껍질깍지벌레이다. 今年度에는 病害虫防除計劃面積을 發生面積의 57%인 219千ha로 定하고 總148億원(國費76億원)을 投入하여 솔잎혹파리 53,260ha, 솔껍질깍지벌레 7,170ha, 소나무材線虫 1,860ha의 防除에 力을 傾注하는 한편 흰불나방등 기타 들

발해총 156,710ha를 現位置에서 撲滅하므로써 애써 가꾸어온 山林資源을 積極 保護해 나갈 計劃이다.

2. 山地淨化活動과 連繫한 산불防止

國民所得이 向上됨에 따라 山을 즐겨 찾는 人口가 急增하고 있으며 山에 오르면 으례히 飲食을 지어먹는 慣行으로 因하여 山林内에 汚物과 쓰레기가 산적되어 汚染이 극심할뿐만 아니라 入山者들의 不注意로 因한 산불發生이 年平均 산불發生件數(218件)의 53%나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오락과 취사위주의 山行文化를 情緒醇化와 心身鍛鍊 위주의 山行文化로 하루속히 定着시키는 것이 主要한 課題로 擡頭되고 있다.

따라서 山地의 汚染防止와 산불豫防을 위한 山行秩序를 確立하기 爲하여 무엇보다도 對國民 啓導와 弘報에 注力하면서 지난해 定期國會에서 通過되어 公布된 山林法의 改正을 制度的裝置로 하여 着實하게 山行秩序를 確立, 定着시켜 나갈것이며 특히 다음事項에 重點을 두고 推進할 計劃이다.

첫째 山地의 淨化對策

入山者の 往來가 頻煩하고 쓰레기에 依한 山地污染憂慮地域으로서 山地淨化와 保護上 必要한 地域을 入山統制區域으로 指定

하여 監視公務員을 集中配置함으로서 入山者의 微底한 統制와 指導啓蒙을 強化하는 한편 入山許容地域内에서도 烹事行爲를 原則的으로 禁止시키고 例外的으로 申告된 者의 烹事에 있어서도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오기 運動」을 展開하여 山地汚染을 防止해 나갈 計劃이다. 이를為해 今年 3月 1日부터 全山林行政力を 動員하여 集中的인 團束을 通하여 山林內 無斷烹事行爲者와 火器및 引火物質所持入山者에게는 10萬원以下의 過怠料를, 山林內에 汚物이나 쓰레기를 버린者에게는 200萬원以下의 過怠料賦課를 嚴格히 執行하므로서 山에서 쓰레기를 마구버리는 國民意識을 轉換시켜 山林이 國民의 깨끗한 休息空間으로서의 제機能을 充分히 發揮할수 있도록 維持管理해 나갈 計劃이다.

둘째, 산불防止體制의 構築

今年度에도 산불脆弱時期인 봄철(3. 1 ~ 5. 31)과 가을철(11. 15~12. 15)을 산불조심期間으로 定하고 이 期間동안 全國市·郡·區 및 營林署單位機關에 산불防止 對策本部를 設置하고 非常勤務體制를 確立하여豫防爲主의 根源的防止對策을 講究함으로서 산불豫防과 早期鎮火에 能動的으로 對處해 나가고자 한다. 特히豫防措置를 為해 산불脆弱地域에 對한 入山統制區域을 3,131個所(1,261千ha) 指定하고 登山路 409個所(1,960km)를 閉鎖措置하며 산불監視要員 10,500名을 脆弱地爲主로 集中配置하여 啓導와 監視活動을 展開하는 한편 山林안에서의 烹事行爲는 農林水產部令이 定하는 경우의 申告를 除外하고는 全面禁止케하고, 벼너등의 火器및 引火物質의 臨時保管所를 登山路入口 등에 設置運營하여 所持入山을 禁止도록하며 이를強力團束함과 同時に 논

밭두렁 및 農產廢棄物燒却에 對한 統制를 邑面洞長이 責任管理케 하므로써 산불被害를 根源的으로 防止하는데 온갖 努力を 다 할 計劃이다.

셋째, 산불鎮火體制確立과 裝備擴充

地上 및 空中監視를 通한 산불早期發見, 早期申告體制를 強化하되 里洞單位 및 邑面單位特別鎮火隊等 各級鎮火隊를 再整備 補充하고 持續的鎮火訓練으로 鎮火能力을 培養해 나갈 計劃이다.

鎮火裝備의 確保狀況은 地上裝備로서 鎮火道具 1,114組, 등침펌프 194台, 無電機 64台, 動力泵 17百台, 動力泵 300台, 防火服 94着등을 確保管理하고 있으며, 空中裝備로는 헬기 12台 軍헬기支援用 물바켓스 30台를 確保하였고 今年度에도 動力泵 60台, 携帶用無電機 400台 防火服 980着을 补強하며 헬機 3台를 追加導入하여 總 15台의 헬機를 脆弱地域爲主로 各市道에 集中機動配置하여 初動鎮火에 對處하므로써 산불被害를 最少화하도록 強力히 推進해 나갈 計劃이다.

3. 林產物流通構造의 改善

山林에서는 木材를 비롯한 樹實, 山菜, 藥草, 벼섯類등 多樣한 林產物이 生產되고 있음에도 流通體系의 未確立과 流通施設의 未洽으로 因하여 林產物의 원활한 流通秩序와 價格安定을 期하지 못하고 있을뿐 만 아니라 UR協商과 關聯한 輸入開放에 對應하여 林產物流通構造의 改善은 더욱 時急한 課題이다.

林產物流通施設은 2000年까지 林產物直賣場 17個所, 木材集荷場 33個所, 林產物流通센타 50個所등 總 100個所를 山林組合系統에 設置目標下에 年次의으로 擴大運營

하므로써 山林組合이 林產物流通 專擔機關으로서의 役割을 遂行하도록 改善해 나가고자 한다.

現在 運營되고 있는 流通施設은 道單位인 大都市에 設置하는 林產物直賣場 5個所(서울, 全州, 大田, 昌原, 春川)와 木材等의 大量集產地인 郡單位에 設置하는 木材集荷場 5個所(加平, 聞慶, 平昌, 堤原, 南原) 및 林產地流通센타 1個所(晋州) 등 11所가 運營되고 있으나 아직도 初期段階에 있으므로 보다 더 計劃的인 運當의 活性化를 圖謀해 나가겠으며 今年度에는 11億원을 投入하여 林產物直賣場 1個所, 木材集荷場 1個所, 林產物流通센타 5個所 등 總 7個所의 流通施設을 新設할 計劃이며 이로써 流通施設은 總 18個所로 擴大 運營된다.

4. 海外山林開發의 擴大

今年度 우리나라의 木材總需要量은 昨年보다 6%가 增加된 10,295千m³로서 그중 15%인 1,582千m³는 國內材로 供給하고 85%인 8,713千m³는 外材로 供給할 計劃이다.

產業社會의 進展에 따라 우리의 長期木材資源은 아직 幼令林狀態에 있을뿐 아니라 世界木材資源事情마저 木材資源國은 環境保全意識의 擴散으로 伐採量을 減少시키고 있고 더욱이 加工輸出政策의 強化로 原木輸出規制가 擴大되고 있어 外材導入 與件은 더욱 不利하게 展開되고 있다.

따라서 木材의 長期安定的 供給을 為해서는 海外山林開發을 위한 業體進出에 注力하여야 할 실정이다. 지난해는 現代의 소련의 スペトル라야 進出을 비롯한 5個業體가 進出함으로서 海外山林開發進出에活性화를 期한 한해였다고 하겠으며, 앞으로 더

大洋洲, 中南美, 소련 등 原木輸出未規制地域으로의 進出을 積極誘導하는 한편 原木開發에서 製材木, 單板釘, 家具部品等 半製品이나 完製品의 直接開發導入도 併行推進해 나갈 計劃이다.

더욱이 南洋材의 資源確保與件이 惡化되고 있음을勘案할 때 우리의 南洋材中心의 木材消費패턴을 松柏類, 北洋材로 漸進의 인 轉換을 誘導하면서 北洋材開發을 為한材質 및 用途開發에도 注力해 나갈 計劃이다.

5. 林業投資을 위한 資金支援의 擴大

今年度 山林事業投資에 支援될 林業資金의 運用規模을 昨年對比 21%가 增加된 總 306億원으로 策定하였다.

融資資金別로 보면 山林開發基金 60億원, 財特資金 45億원, 農漁村發展基金 27億원, 農水產物價格安定基金에서 174億원이 支援될 計劃이다.

이를 資金別融資對象事業別로 보면 山林開發基金(利子率: 3%)에서 造林, 育林에 25億원, 林道施設 15億원, 林業後繼者育成에 10億원 기타 休養林造成등에 10億원이며, 材特資金(利子率: 5.5%)에서 養苗 20億원, 亞生産 10億원, 利用加工을 為한 原資材 10億원, 副產物生產등에 5億원, 農漁村發展基金(利子率: 8%)에서 林產物利用加工施設 14.7億원, 林產物貯藏施設 8億원, 穀作目轉換 4.2億원, 農產物價格安定基金에서 밤出荷調節資金(利子率: 5%) 80億원 輸出促進資金(利子率: 10%) 94億원이다.

특히 今年度에는 林業後繼者의 育成을 為하여 1人當 1,000萬원을 限度로 信用融資支援하므로써 원활하게 事業을 推進할 수 있도록 措置하였다.